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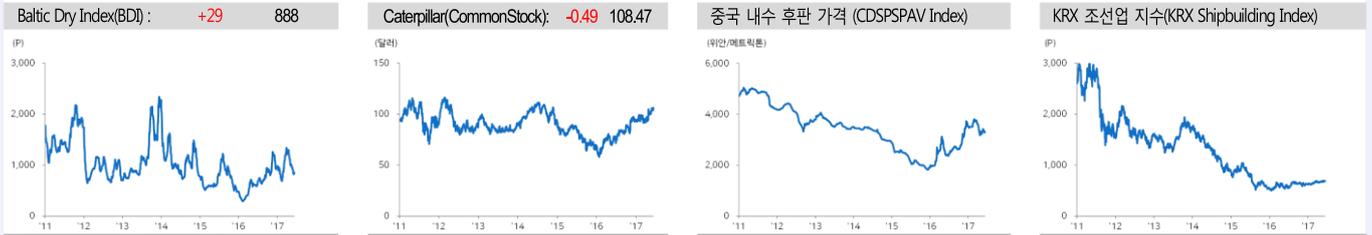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9,406.5	20.4	166,000	1.2	-10.0	NA	19.9	32.2	72.3	0.8	0.8	2.4	1.1
현대로보틱스	4,731.9	17.8	393,000	1.3	0.6	NA	NA	7.6	8.4	0.9	0.8	11.6	9.5
현대일렉트릭	1,111.2	8.1	299,500	1.0	-6.0	NA	NA	14.3	14.8	1.3	1.2	9.1	8.1
현대건설기계	1,360.1	10.2	379,500	2.6	8.9	NA	NA	15.1	13.1	1.7	1.5	11.1	11.4
삼성중공업	4,660.5	20.0	11,950	2.1	-8.8	16.6	29.2	60.6	129.3	0.7	0.7	1.2	0.6
대우조선해양	NA	3.8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2,070.0	13.6	103,500	3.0	-8.4	26.2	54.0	130.5	158.3	0.9	0.9	0.7	0.6
한진중공업	458.1	5.0	4,320	1.6	-8.1	26.1	28.4	-13.4	9.8	0.5	0.5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448.4	28.6	58,800	-1.5	-5.5	-2.6	2.4	8.9	7.9	1.5	1.3	18.7	17.5
두산발켓	3,538.8	24.2	35,300	-0.1	-2.8	-5.7	-1.5	15.5	14.2	1.0	0.9	6.6	6.7
현대로템	1,670.3	29.0	19,650	-1.0	-11.7	-6.2	8.3	37.2	25.2	1.2	1.1	3.2	4.6
하이록코리아	342.4	45.9	25,150	0.8	-0.6	17.2	19.2	13.2	11.6	1.1	1.0	8.5	9.0
성광벤드	296.0	13.6	10,350	0.0	-2.8	-4.2	16.8	33.5	19.3	0.6	0.6	1.9	3.2
태광	267.7	17.3	10,100	1.1	9.7	7.7	21.8	37.8	20.8	0.6	0.6	1.6	2.9
두산중공업	2,251.6	11.9	21,150	-0.7	-10.0	-13.0	-22.2	14.6	9.6	0.7	0.7	4.8	7.0
두산인프라코어	1,734.3	15.5	8,360	-1.1	-1.2	-14.6	-5.2	10.2	8.6	0.8	0.8	8.3	9.4
두산엔진	290.9	5.4	4,185	-0.1	-7.2	26.8	27.4	20.1	22.1	0.5	0.5	2.7	2.3
한국항공우주산업	5,946.0	25.0	61,000	1.0	-3.5	6.8	-9.0	24.4	20.5	3.7	3.3	16.3	17.1
한화테크윈	2,259.2	24.7	42,950	0.6	-7.8	-9.9	-1.2	19.3	15.1	0.9	0.9	5.0	6.2
LG넥스원	1,555.4	19.7	70,700	-0.1	-3.2	-11.2	-12.2	18.5	14.0	2.2	2.0	13.4	15.0
태웅	478.2	4.0	23,900	-2.6	-11.3	-4.2	6.5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66.8	2.8	6,180	-0.6	1.8	-10.0	7.5	-28.7	12.3	1.5	1.4	-5.1	12.0
한국카본	273.0	17.1	6,210	-1.4	-5.3	-8.4	2.6	24.4	23.1	0.8	0.8	3.5	3.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표 및 차트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삼성중 "드릴십 1년6개월 앞당겨 인도...850억원 받는다"

삼성중공업이 Ensco로부터 수주한 Drillship을 예정보다 1년 6개월 빠른 9월 25일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함. Ensco의 Drillship은 2차례 인도 지연이 발생해 인도 시점이 2019년 3월로 지연된 바 있음. 삼성중공업은 인도시 7,500만달러의 인도대금을 확보할 수 있음. (연합뉴스)

### Seadrill fixes drillship in Brazil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John Fredriksen의 Seadrill이 Statoil과 브라질 광구 탐사를 위한 용선계약을 체결함. 용선계약은 2017년 12월 개시될 예정이며 총 계약금액은 약 2,600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추가 탐사를 위한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Tradewinds)

### Hyundai Mipo bags tankers from Japanese shipowners

현대미포조선이 일본의 3개 선사로부터 MR Tanker를 최소 5척 수주함. Fukujin Kisen과 Masumoto Shipping은 MR Tanker를 2척씩 발주했으며 Hisamoto Kisen의 발주 척수는 명확하지 않음. 선가는 적당 3,200만달러로 IMO Tier II 규정을 만족시키는 선박으로 알려졌다. (Tradewinds)

### 대우조선해양 "드윈드 연내 매각 안 되면 청산"

대우조선해양이 연내 품력 자회사인 드윈드를 매각하지 못하면 청산할 방침이라고 밝힘.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미국 품력발전 업체인 드윈드를 인수했으나 2009년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루마니아 및 망갈리아 조선소의 경우 네덜란드 Damen Group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조선비즈)

### Shipping emissions cuts could be hit by Trump's Paris pull-out

IMO가 논의하고 있는 탄소배출 관련 규제가 Trump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미국은 지금까지 환경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Trump 대통령 당선 이후 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음. 다만 중국과 인도는 규제 도입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조선비즈)

### Nisshin lines up raft of dry orders in China and Japan

지난 2년간 20척 이상의 벌크선을 매각한 일본의 Nisshin Shipping이 중국 Hantong Ship Heavy Industry에 5+2척의 Kamsarmax 벌크선을 발주함. 선가는 적당 2,400만달러로 2018년과 2019년 인도 예정임. Nisshin Shipping은 일본의 조선소와 추가 발주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적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7월 1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가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1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7월 1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